

2013. 7.

(2013. 6. 28.(금) ~ 7. 3.(수) / 4박 6일)

환경복지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목 차

제1장 연수개요	1
① 목 적	1
② 현 황	1
③ 내 용	2
④ 주요일정	2
⑤ 연수자 명단	3
제2장 방문국 주요현황	4
① 일반현황	4
② 세부현황	8
③ 최근동향	23
제3장 연수내용	25
① 방문지역 현황	25
② SOS 빌리지 방문	30
③ 라오스 한인회 간담	35
④ 한국국제협력단(KOICA) 라오스본사 방문	38
⑤ KOLAO 그룹 방문	45
제4장 연수후기	49
□ 라오스 연수를 마치며 (고영규 환경복지위원장)	49

제1장 연수개요

1 목 적

- ◆ 최근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연 그대로 간직하고, 생태관광자원이 풍부한 라오스를 방문하여
- ◆ 지역을 새롭게 상상하고 지역적 맥락과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하여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현 황

- 연수기간 : 2013. 6. 28(금)~ 7. 3(수) / 4박 6일
- 연수인원 : 14명 (의원 6, 의원보좌 3, 정책연구 5)
 - 의 원(6) : 환경복지위원 6
 - 의원보좌(3) : 환경복지전문위원실 3
 - 정책연구(5) : 정책연구2팀 3, 운영전문위원실 2
- 연수지역 : 라오스 (비엔티엔, 방비엥, 루앙프라방)

3 내 용

- 방비엥, 루앙프라방의 자연생태보전 및 관광자원화 사례 분석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라오스본사 방문을 통한 보건사업, 교육사업 등 해외원조 활동상황 청취 및 자료 수집
- 라오스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라오스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 라오스 한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한 현지상황 및 애로사항 청취
- KOLAO 그룹을 방문하여 국가와 기업의 동반성장 및 지속 가능 경영 전략 파악

4

주요일정

일자	방문지역	일 정	비 고
2013 6. 28. (금)	전주,인천 ⇒ 비엔티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의회 집결 후 출발(11:30) ○ 인천 국제공항 집결·출발 ○ 비엔티엔 국제공항 도착 ○ 호텔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 	1일차
6. 29. (토)	비엔티엔 ⇒ 방비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 이동(비엔티엔→방비엥) ○ 방비엥 생태환경 시찰 ○ 호텔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 	2일차
6. 30. (일)	방비엥 ⇒ 루앙프라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 아침시장 견학 ○ 이동(방비엥→루앙프라방) ○ 고산민족 몽족마을 방문 ○ 호텔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 	3일차
7. 1. (월)	루앙프라방 ⇒ 비엔티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뵈 체험 및 새벽시장 견학 ○ 호텔 조식 후 ○ 복지시설 방문(SOS Villanges) ○ 산림공원(광시폭포) 방문 ○ 이동(루앙프라방→비엔티엔) ○ 호텔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 	4일차
7. 2. (화)	비엔티엔 ⇒ 인 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 라오스 한인회 간담 ○ 한국국제협력단 라오스본사 방문 ○ KOLAO 그룹 방문 ○ 비엔티엔 국제공항 출발 	5일차
7.3(수)	인 천 ⇒ 전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전주 도착(11:30) 	6일차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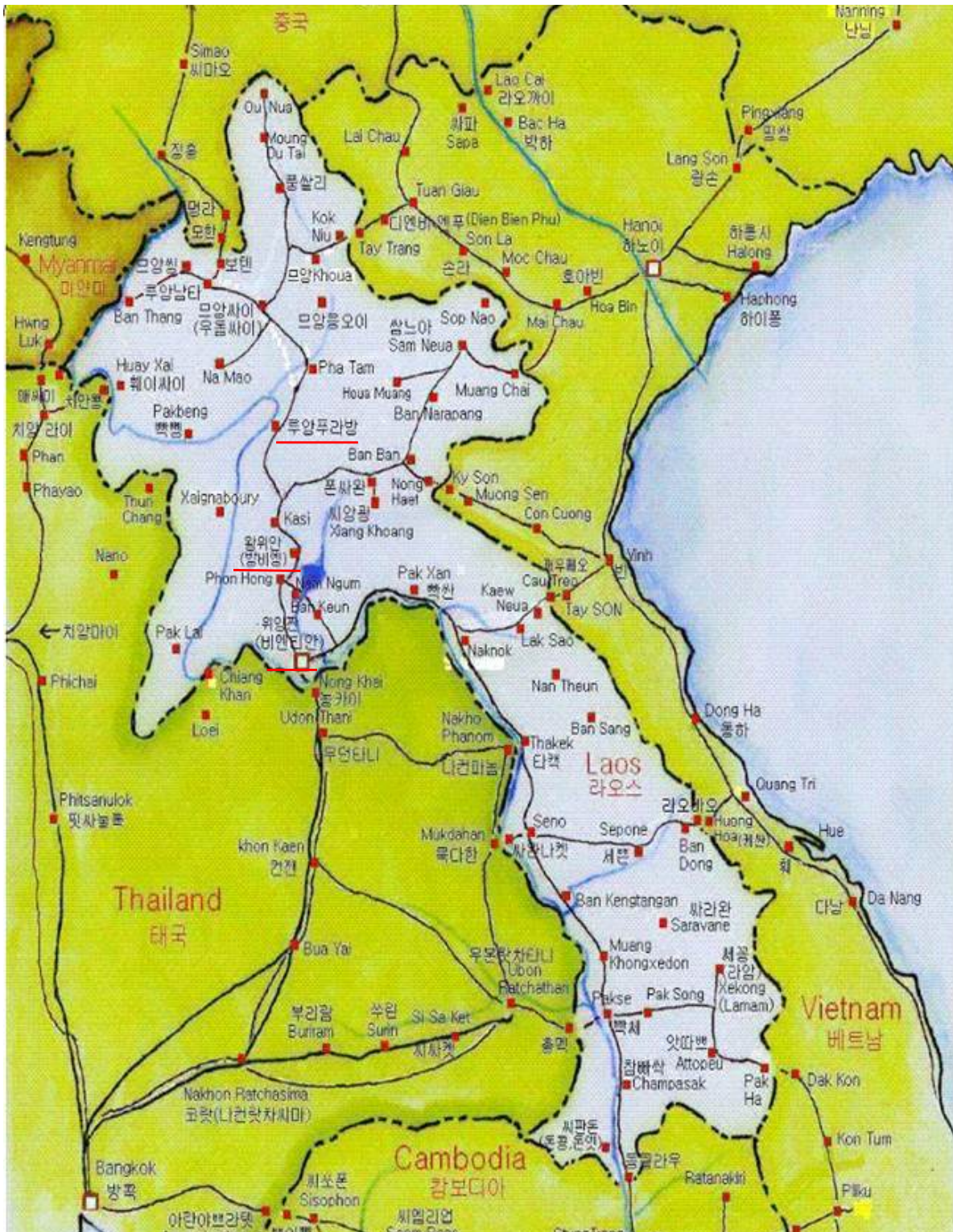
연수자 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영문)	비 고
계		14명	
의 원 (6명)	환경복지 위 원 장	고 영 규 (GO YOUNGKYU)	
	부위원장	김 종 담 (KIM JONGDAM)	
	위 원	강 영 수 (KANG YOUNGSOO)	
	“	김 광 수 (KIM KWANGSOO)	
	“	배 승 철 (BAE SEUNGCHUL)	
	“	이 현 주 (LEE HYUNJU)	
의원보좌 (3명)	환경복지 전문위원	모 삼 중 (MO SAMJONG)	
	직 원	노 창 환 (NOH CHANGHWAN)	
	“	노 병 철 (NOH BYEONGCHEOL)	
정책연구 (5명)	정책연구2팀장	공 병 원 (KONG BYUNGWON)	
	직 원	고 원 준 (KO WONJUN)	
	“	김 태 균 (KIM TAEGYUN)	
	운영전문 직원	강 경 남 (KANG KYUNGNAM)	
	“	황 미 정 (HWANG MIJ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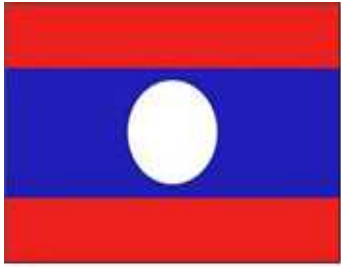
제2장 방문국 주요현황

1 일반현황

□ 라오스 지도



□ 라오스 국기 및 국가 문장



청색은 라오스 국토의 광대함과 번영을, 적색은 라오스인이 국토를 지키기 위해 흘린 피와 용기를, 중앙의 흰 원은 라오스인의 순수한 마음과 건강을 상징한다.



중앙 하단의 붉은 띠에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양 옆에는 반원형의 벼단을 두르고 이를 감싼 리본에는 '평화, 독립, 민주주의, 단결, 번영'을 표기하였다. 가운데에는 라오스 불교의 상징인 탱 루앙 불탑임

□ 일반사항

- 국 명 : 라오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 위 치 : 북위 14.1-22.3도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가
- 지 형 : 산악지대가 전 국토의 약 75%를 차지
- 수 도 : 비엔티안(Vientiane, 인구 75만)
- 인 구 : 약 655만명(2011)
- 면 적 : 23.6만km²(한반도의 약 1.1배)
- 종 교 : 불교(95%), 가톨릭, 개신교
- 기 후 : 연평균 기온은 28°C(최고 - 4월(38°C), 최저 - 12월(15°C))
- 민 족 : 공식적 49개의 종족(2008.12 국회 채택), 크게 라오름, 라오통, 라오송 등으로 나뉨
- 언 어 : 라오스어. 성조가 있는 말로, 태국어와 유사
- 시 차 : 우리시간 - 2

□ 정치현황

- 정세 : 인민민주공화제
- 정부 주요인사
 - 대 통 령 : 촘말리(Choummaly Sayasone)
 - 총 리 : 통싱(Thongsing Thammavong)
 - 부 통 령 : 분냥(Bounnhang Vorachit)
 - 국회의장 : 파니(Pany Yathortou)
 - 부총리 겸 외교장관 : 통룬(Thongloun Sisoulith)
- 정당 : 라오인민혁명당(1당 독재체제)
- 의회 : 단원제(임기 5년)
- 지방행정조직 : 16개 주 및 1개 특별시(비엔티엔)로 구성

□ 경제 현황(2012년) ※World Bank

- GDP : 94억불
- 1인당 GDP : 1,300불
- 경제성장률 : 8.2% • 물가상승률 : 8.7%
- 교역액 : 41억불
 - 수출 : 16억불(광물, 전력, 농산물, 목재)
 - 수입 : 25억불(원유, 자동차, 건축자재 등)
- 주요산업 : 광업(금, 구리 등), 수력발전, 농업, 관광, 섬유
- 환율 1\$ = 7,932Kip(화폐단위 킵) ※라오스 중앙은행

□ 우리나라와의 관계

- 74. 6.22 수교
- 75. 7.24 라오스 공산화로 단교
- 95.10.25 복교
- 96. 9.19 상주대사관 개설
 - 공관장 : 이진태 대사 (10.2월 부임)
- 수출입현황 및 주요 품목(12) ※한국무역협회
 - 교역액 : 1.76억불

- 수출 : 1.65억불(자동차, 자동차부품, 중장비 등)
- 수입 : 1천1백만불(동, 목재, 커피 등)
- 투자액(88-12.5월 누계) : 약 7.5억불
 - ※ 라오스 승인액 기준(4위)
- 무상원조(91-11 누계) : 5천9백만불
- 유상원조(04-11 누계) : 1.6억불(승인)
- 주요인사 교류현황
 - 02. 5 분양 총리 방한
 - 04.11 노무현 대통령 방문(ASEAN+3 정상회의)
 - 05. 7 반기문 외교부장관 방문
 - 05.12 사만 국회의장 방한
 - 07. 3, 9 솜사왓 상임부총리 방한
 - 08. 6 부아손 총리 방한
 - 09. 6 부아손 총리 방한(한-ASEAN 특별정상회의)
 - 11. 9 박희태 국회의장 방문
 - 11.10 통룬 부총리겸 외교장관 방한(한-메콩외교장관회의)
 - 11.11 솜사왓 상임부총리 방한(부산개발총회)
 - 12. 7 통싱 총리 방한
 - 12.11 김황식 총리 방문(ASEM 정상회의)
- 교민현황(12)
 - 라오스내 한국인 : 약1,500명
 - 한국내 라오스인 : 약 500명
- 인적교류(12)
 - 방라 한국인 : 34,707명
 - 방한 라오스인 : 2,583명

□ 북한과의 관계

- 74. 6 수교
- 74. 9 주라오스 북한대사관 개설
- 98. 7 주북한 라오스대사관 개설
 - 공관장 : 한봉호 대사(10.5월 부임)

2 세부현황

가. 역 사

- 라오족은 8세기경부터 중국 남부로부터 하천을 따라 남하하기 시작했으며, 13세기 경 몽고의 세력 확대에 따라 라오족을 포함한 태국계 제민족의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각지에 무앙(Meuang)이라 불리는 호족정치체가 성립
- 그중 라오계 국가는 현재의 태국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한 란나 왕국과 루앙프라방을 중심으로 한 란쌍왕국인데, 란나의 쇠퇴로 1353년 세워진 란쌍을 라오스의 대표적인 왕국으로 인정
- 한때 란쌍왕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나라 중 하나로, 그 판도가 현재의 태국 동북부 지역에만 이르렀으나, 후계를 둘러싼 내분 및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으로부터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서서히 쇠퇴하여, 18세기 초에는 루앙프라방(북부), 비엔티안(중부) 및 참파사크(남부) 왕국으로 분열되어 태국의 영향권으로 흡수
- 1820년대에 비엔티안왕국은 참파사크와 연합하여 태국에 반기를 들었으나 실패하여 비엔티안까지 유린당하고 완전히 태국영토에 편입
 - 현재 방콕의 왕궁시원에 있는 에메랄드 불상은 이때 비엔티안에서 약탈한 것으로 유래
 - 19세기 말엽까지는 루앙프라방 왕국만 태국의 속국이나마 국가의 형태를 유지
- 1893-1907년 사이에 맺어진 프랑스-태국 간의 조약에 따라 프랑스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인 현재의 라오스 영역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말기 잠시 일본의 군사점령하에 있다가 1954년 프랑스와 라오스 간의 조약에 따라 완전한 독립 인정
 - 식민화 과정에서 루앙프라방 왕국은 보호령, 여타 라오스는 직할 식민지로 구별되어 통치를 받다가 프랑스 패퇴 후인 1946년경 독립선언과 함께 루앙프라방 왕을 전체 라오스 국왕으로 선포
- 독립 후 국내의 좌파, 중립파, 우파의 대립은 계속되었고 인도차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열강까지 개입하여 내전이 이어졌으며

- 1962년 제네바조약의 성립으로 연립정부가 들어서기도 했으나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고 친 서방의 비엔티안 정부(왕정)와 좌파 '파테트라오(라오인민혁명당)' 간의 항쟁 격화
- 1973년 미국-베트남 간의 파리 평화협정 성립과 함께 라오스에서도 정전 협정이 맺어져 연립정부가 들어섰으나,
- 그후 1975년 인도차이나 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라오스에서도 라오인민혁명당이 이끄는 라오스애국전선이 실권을 장악한, 사실상의 무혈혁명이 일어나 같은 해 12월 2일 현재의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성립

나. 정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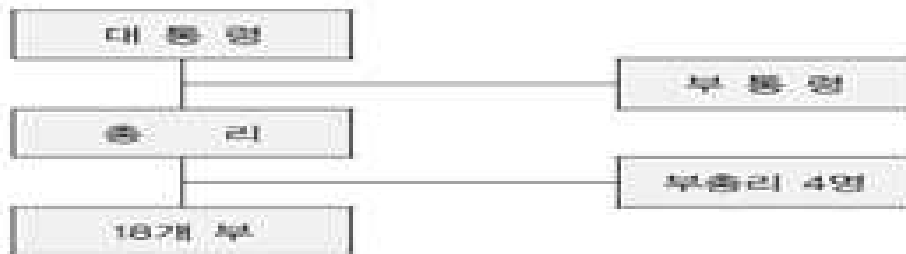
□ 개 관

- 1975년 8월 라오스 애국전선(파테트라오)은 대립 항쟁 중이던 비엔티안 정부측을 제압하고 무혈 혁명에 성공, 같은 해 12월에는 왕정을 폐지하고,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을 수립. 그후 라오스는 카이손인민혁명당서기장 겸 총리의 지도하에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
- 1986년 라오인민혁명당 제4차 당대회에서 경제개방 및 시장경제원리를 주축으로 하는 신경제제도(NEM:New Economic Mechanism)를 도입, 국영기업의 민영화, 은행제도 및 세제개혁, 외국인 투자 유치법 제정 등 조치
- 1991년 8월 헌법이 채택되고, 이 헌법에 따라 1992년 12월 최초로 국회의원선거 실시. 라오스 헌법은 혁명 15주년을 기념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기본이념은 제5차 당대회의 노선을 답습하여 일당제의 유지를 고수하고 있으나, 라오스가 근대 법치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데에 의미
 - 라오스의 국부 격인 카이손 전 총리는 헌법 문안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과거 형식상의 수반에 불과하던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에 따라 대폭 강화, 카이손 전 총리는 헌법 채택 직후 (1991.8)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으나, 1992년 11월 사망
- 촘말리 현 대통령은 부통령으로 있다가 2006년 당서기장 겸 대통령으로 선출 되었으나, 카이손의 사회주의 이념과 개혁개방정책을 충실히 계승

□ 정치제도 : 인민민주공화제

□ 정부조직

- 중앙정부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회의결에 의해 선출, 임기는 5년



- 지방정부
 - 16개주와 1개 특별시(Vientiane Municipality)로 구성됨.
 - 각 주별로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군(무앙), 촌(반)이 있음

□ 국 회

- 국회는 단원제이며, 의원 정수는 132명, 임기는 5년
- 의원들은 전원 라오스의 유일 정당인 라오인민혁명당 소속으로, 그 산하단체인 라오국가건설전선의 일원
- 정기 국회는 연 2회 개최되며, 국회는 헌법의 승인 및 수정, 법률 개폐 및 수정, 주요국가 정책의 승인, 대통령 선출 등의 권한 보유
- 의원선거는 직접·보통 선거로 실시되며,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선거권, 만 21세 이상에게 피선거권 부여
- 국회는 상임위원회 법사위원회, 경제기획재정위원회, 종족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국방안보위원회, 외교위원회 등 6개의 소관위원회와 사무처 등으로 구성
- 라오스의 국회는 여타 민주국가의 국회와는 달리 헌법상 제한 규정 존재

□ 정당 및 단체

- 라오인민혁명당 : 1930년 창설된 베트남의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모체로 1955년 3월 결성
- 라오국가건설전선 : 인민혁명당의 활동을 돕는 민족통일 전선 조직

□ 사법 및 법률제도

- 사법제도 : 최고재판소로서 인민대법원이 있고, 주 및 군별로 지방인민재판소가 설치, 독립기관으로서 중앙의 최고인민검찰청 및 주, 군 별로 지방검찰조직이 구성
- 헌법 및 여타법률 : 라오스 헌법의 기본이념은 1991년 3월 제5차 전당대회에서 노선을 답습하여 정치적으로는 일당제를 유지하고, 경제면에서는 시장경제와 개방경제를 지향, 헌법외에 2011년 현재 총 89개의 법률이 시행

다. 경 제

□ 경제 정세

- 라오스는 세계 최빈 개도국으로, 2015년까지 MDG 달성과 2020년까지 최빈국 탈피를 목표로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NSEDP)' 이행에 힘쓰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 평균 7.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 시현
- 경제 성장은 주로 라오스 보유 천연자원을 이용한 대규모 해외직접투자(수력발전 및 광업) 및 원조공여국의 ODA에 기인한 바가 큰바,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역량 강화, 투명성 증대, 특히 재정 건정성 달성을 위한 개혁조치의 성공적인 이행 및 親 투자환경 조성 등이 시급

□ 주요지표

- 주요 국가별 대 라오스 투자(FDI) 현황(200~2010)

(단위: 백만 불)

순 위	국 가	액 수
1	베 트 남	2,972
2	중 국	2,846
3	태 국	2,694
4	한 국	518
5	프 랑 스	470
6	일 본	439
7	인 도	359
8	호 주	336
9	노르웨이	230
10	말레이시아	156
	계	11,018

※ 출처 : 라오스 기획투자부

-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GDP (백만 불)	2,507	2,738	3,497	4,263	5,498	6,095	7,492
GDP성장률 (%)	6.4	7.1	8.5	7.4	7.6	7.4	8.4
1인당 GDP (불)	442	476	599	719	913	997	1,206
소비자 물가 증가율 (%)	10.5	7.2	6.8	4.5	7.6	0.0	6.0
인구 (백만 명)	5.6	5.7	5.8	5.9	6.2	6.3	6.4
총 교역액 (백만 불)	1,591	1,966	2,830	3,432	4,429	4,412	5,829
수출액 (백만 불)	535	696	1,178	1,324	1,609	1,521	2,215
수입액 (백만 불)	1,056	1,270	1,652	2,108	2,837	2,893	3,614
무역수지 (백만 불)	-521	-574	-474	-784	-1,228	-1,372	-1,399
환율 (1\$: TKip)	10,585	10,655	10,160	9,603	8,744	8,516	8,259

※ 출처 : IMF(총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World Bank(GDP, GDP성장률, 1인당 GDP, 소비자물가 증가율, 인구, 환율)

- 주요 수출품 및 수입품(2008~2009 기준)

(단위: 백만 불)

주요 수출품	금역	주요 수입품	금역
광물	532.6	원유 및 가스	159.4
전력	274.6	자동차 및 부품	146.7
의류, 수공예품	167.6	건축자재	92.6
농축산물	87.1	의류원단	43.4
목재	46.0	전력	30.5

※ 출처 : 라오스 산업통상부

- 주요국의 대 라오스 무상원조 현황(FY2008~2009 기준)

(단위: 백만 불, %)

순위	원조공여국	공여액(총 337.69백만 불)	점유율
1	일본	90.00	26.65
2	독일	36.23	10.73
3	한국	33.69	9.98
4	태국	25.91	7.67
5	호주	24.40	7.23
6	중국	24.00	7.11
7	인도	21.74	6.44
8	스웨덴	19.08	5.65
9	베트남	15.00	4.44
10	스위스	9.90	2.93
상위 10대 국가의 비중			88.83

※ 출처 : 라오스 기획투자부

- 주요 교역상대국

(단위: 백만 불)

2009년 (총 4,412백만 불)					2010년 (5,829백만 불)				
순위	국가명	수출	수입	총 교역	순위	국가명	수출	수입	총 교역
1	태국	424	1,801	2,225	1	태국	690	2,348	3,038
2	중국	306	414	720	2	중국	511	524	1,035
3	베트남	226	186	412	3	베트남	287	237	524
4	일본	24	83	107	4	한국	18	123	141
5	한국	16	61	77	5	일본	34	68	102
6	프랑스	13	63	76	6	영국	70	6	76
7	독일	48	18	66	7	독일	53	21	74
8	미국	42	23	65	8	미국	56	13	69
9	영국	62	2	64	9	벨기에	17	20	37
10	벨기에	15	31	46	10	홍콩	3	30	33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경제정책(신경제 제도)

- 경제운영 목표
 - 2020년까지 세계 최빈국 지위 탈피
 - 도시와 농촌간 조화로운 발전 추구
 - 농업, 임업, 공업, 서비스업의 균형발전 추구
- 8대 우선 사업
 - 인적자본육성, 농촌개발, 식량증산, 상품생산, 화전농업금지, 대외경제관계 강화, 사회간접자본 정비, 서비스 부문의 확대

라. 보건·사회·문화

□ 보건 일반현황

- 라오스는 고온 다습한 전형적인 열대성 기후로, 각종 풍토병이나 전염병이 발생
 -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말라리아, 뎅기열, 각종 기생충 질환, 요오드 결핍증, 콜레라 등이 있으나, 비엔티안 등 도시 중심부의 감염률 저조
 - 2010년에는 수도 비엔티안을 포함, 전국적으로 18,000명의 뎅기열 환자가 발생하고 이중 42명이 사망하는 등 뎅기열 발병률이 역대 최고 수준 기록
 - 보건부 산하의 말라리아·기생충·곤충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 전개

- 일반 국민의 위생 상태나 생활수준을 대표하는 지표인 5세미만 유아사망률 (1,000명당 61명/2009년 기준), 평균 수명(남 62세, 여 66세/2009년 기준) 면에서는 세계 최저수준
 - 최근 라오스 보건당국 및 국제원조기관의 노력 결과, 유아 사망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평균 수명은 증가
- 연령 및 성별 인구 분포(2009년 기준)

(단위: 천 명, %)

연령(세)	남성	점유율	여성	점유율	계	점유율
0-4	441.2	14.4	427.4	13.9	868	14.2
5-9	355.0	11.6	350.6	11.4	705	11.5
10-14	380.1	12.4	369.3	12.0	749	12.2
15-19	375.9	12.3	361.9	11.8	737	12.0
20-24	296.6	9.7	299.5	9.8	596	9.7
25-29	232.3	7.6	240.3	7.8	472	7.7
30-34	193.0	6.3	200.2	6.5	393	6.4
35-39	165.2	5.4	171.4	5.6	336	5.5
40-44	154.4	5.1	155.5	5.1	310	5.1
45-49	123.5	4.0	125.2	4.1	248	4.1
50-54	104.0	3.4	105.3	3.4	209	3.4
55-59	75.7	2.5	81.4	2.7	157	2.6
60-64	53.4	1.7	57.7	1.9	111	1.8
65-69	40.8	1.3	46.4	1.5	87	1.4
70-74	28.7	0.9	32.3	1.1	61	1.0
75+	37.3	1.2	44.7	1.5	82	1.3
계	3,057	100	3,070	100	6,127	100

※ 출처 : 라오스 통계청

- 도시 주민의 약 60%만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의사 1인당 인구수의 경우, 수도 비엔티안 지역이 1인당 1,089명이고 전국 평균은 1인당 4,200명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인 것으로 추정

□ 의료상황

- 비엔티안 시내에 마호숫, 세타티랏, 미타팜 등 국립종합병원과 각 도에 종합병원이 있으나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외국인 및 라오스 중산층의 경우 간단한 응급처치와 혈액검사, X-Ray 촬영 이외에는 인근 태국 우돈타니(Udonthani) 소재 병원을 이용하는 실정

- 약국에는 라오스 자체생산 약품 외에 프랑스, 태국, 중국 등에서 수입된 약품들이 구비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알러지약 등은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
- 수도 이외 지역은 의료시설 및 약국이 매우 열악하여 비상약품, 모기약 등 상비 필요
- 병원 통계

구 분	2009년
종합병원	7개 (945병상)
주립 의료원	16개 (1,559병상)
구립 의료원	124개 (1,845병상)
개인 의료인(영세)	222개 (2,076병상)
총 계	369개 (6,425병상)

※ 1. 의료인력(2009년) : 정규의사 6,400명, 조무사 5,100명
 2. 출처 : 라오스 통계청(2009)

□ 에이즈 감염실태

- 라오스에서 최초로 에이즈 환자가 보고된 것은 1992년이며, WHO에 따르면 2008년까지 AIDS로 인한 사망자는 873명에 이르며, 환자는 현재 약 5천 명 정도로 추정(15-49세 성인인구의 감염률은 0.2%).
- 태국과의 왕래가 잦은 수도 비엔티안, 보케오주, 파사크주 등이 에이즈 위험지역
- 라오스 정부는 HIV/AIDS 감염 확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1998년 '에이즈예방 국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라오스 적십자를 중심으로 예방 캠페인 등 실시

□ 마약 문제

-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마약은 주로 아편(Opium)이며, 전국 18개 주 중 북서부 10개 주에서 생산되며, 특히 Oudomxay, Luang Namtha, Xieng Khouang 및 Luang Prabang 등 6개 주에서 연간 전체의 90%가 생산

- 전통적인 아편 재배와 더불어, 미얀마 및 태국 등지에서 생산되는 헤로인 및 신종 마약인 ATS(Amphetamine Type Stimulants)가 라오스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수출되는 실정
- 라오스 정부가 2006년 2월 아편 해방을 선포한 후, 아편 재배지는 2006년 2,700ha에서 2007년 1,500ha로 40% 감소했으며 생산량도 20t에서 9.2t으로 54% 감소하였으나, 최근 아편 가격이 킬로당 600불에서 1,600불로 증가함에 따라 아편 재배지가 3,000ha로 크게 증가(2011년 6월 LCDC 발표)
-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간 마약관련 범죄 적발 건수는 217건, 관련자는 1,216명(외국인 27명 포함)

□ 교육 현황

- 학제 : 초등교육 5년, 중등교육 7년(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해당)
 - 헌법에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취학률은 전국 평균 83.7%에 불과(여자 81.2%, 남자 86.1%)
- 중등과정 취학률 : 전기 3년 과정 - 62.7%, 후기 3년 과정 - 36.8%
- 대학 취학률 : 2% 이하(여자 1%, 남자 3%)
- 성인 문자 해독율 : 전국 평균 78.51%(여자 65.05%)
- 초중/중등학교 현황(2010년 기준)

	학교 수(개)	학생 수(명)	교원 수(명)
초등학교	8,968	916,341	31,784
중등학교	1,236	433,427	20,534

※ 자료 : 라오스 통계청

- 대학교 현황(2010년 기준)

	학교 수(개)	학생 수(명)	교원 수(명)
대학교	5	50,937	1668

※ 자료 : 라오스 교육부

□ 종교

- 라오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왕정시대에는 불교를 국교로서 보호), 공산화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활동, 특히 교육 분야에 서의 공헌을 요구받는 등 활동에 제한

- 불교는 라오스인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라오스인의 사고방식 속에 불교사상이 잠재되어 있음. 국민의 90%가 불교신자
 -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기관과 라오인민혁명청년동맹(Lao People's Revolutionary Youth Union)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 등 두 곳에 승려사범학교 소재

□ 언 론

- TV, 라디오 : 국영 TV 방송국 2개(LNTV, Lao Star TV), 국영 라디오 방송국 1개(LNR)
- 신 문 : 보도기관은 모두 정부계이거나 인민혁명당 기관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엄격한 의미의 언론 자유는 미존재

□ 관 광

- 1990년 이후 라오스 방문 관광객 수는 매년 평균 20% 가량 증가해 왔으며, 2010년은 약 251만여 명
- 관광 수입의 경우 1991-2009년 간 17.4억 불에 달하며, 특히 2010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381.7백만 불을 기록
- 국가별, 연도별 관광객 수 및 점유율

국명	관광객 수 및 점유율	2005년		2010년	
		관광객 수(명)	점유율(%)	관광객 수(명)	점유율(%)
태 국		603,189	55,1	1,517,064	60,4
베트남		165,151	15,1	431,011	17,1
미 국		47,427	4,3	49,782	2,0
중 국		39,210	3,6	161,854	6,4
프랑스		35,371	3,2	44,844	1,8
영 국		29,977	2,7	37,272	1,5
일 본		22,601	2,1	34,076	1,3
호 주		20,323	1,8	30,538	1,2
독 일		16,752	1,5	22,583	0,9
캐나다		11,447	1,0	13,637	0,5
한 국		9,189(11위)	0,8	27,312(9위)	1,1
ASEAN		797,044	72,8	1,990,932	79,2
전체 방문객 수		1,095,315	-	2,513,028	-

※ 출처 : 라오스 관광청

마. 음식 및 과일

□ 음식

- 라오스 사람들은 신선한 채소와 허브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라오스 음식에는 채소와 허브가 들어간다. 고기와 생선은 보통 굵거나 찌서 요리하므로 그 풍미가 살아있고 저지방이다.
- 라오스 음식은 전통적으로 손가락을 이용해 찰밥과 함께 먹는다. 지방에서는 다 함께 바닥에 앉아 몇 가지 요리를 나눠먹는 가정식이 일반적이다. 라오스의 전통음식은 생선이나 물소 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주 재료로 하며 허브를 곁들여 담백하고 맵다
- 랍(Laap) : 라오스 전통음식 중 하나로 다진 고기로 만드는데, 흔히 닭이나 오리를 재료로 한다. 잘 다진 고기 양념과 육즙을 건조시켜서 기름 없이 볶았다가 으깬 생쌀과 섞는다. 랍은 생채소와 찰밥을 곁들여 먹는다.
- 땀막홍(Tam Mak Houng) : 잘게 썬 파파야에 마늘, 고추, 땅콩, 설탕, 젓갈 소스, 라임 주스를 곁들인 샐러드의 일종이다.
- 빠덱(Padeck) : 라오스 전통음식으로 생선을 소금에 절여 단지에 넣고 최소 1년에서 최고 3년 정도 숙성 시켜서 먹는다.



□ 과일

- 라오스에서 볼수 있는 과일과 음료는 태국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부르는 명칭이 약간 차이가 있다. 파인애플(막 낫), 바나나(막꾸어이), 수박(막 모), 코코넛(막 파오), 망고스틴(막 망콧), 파파야(막 흥), 두리안(톨리안)으로 불린다.
-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맥주는 비아 라오로, 맛이 좋아 외국인에게도 인기가 좋다. 전통 곡주인 라오라오는 가정에서 담가 마시기도 하지만 여행자는 병에 담아 판매되는 것을 사 마실수 있다. 남부의 씨판돈에서 생산되는 것이 맛이 좋다.

바. 교통수단

라오스 이동수단

톡톡이



택시 역할을 하는 톡톡이는 삼륜오토바이를 개조한 운송수단입니다. 타시기 전에 흥정을 하셔야 되고, 보통 짧은 거리는 10,000KIP 부터 흥정하시면 됩니다.

쌩태우



쌩태우는 1톤 포터 짐칸의 양쪽으로 2줄 좌석을 놓은 운송수단으로 시내버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탄 손님이 있을 경우, 돌아가기도 하니, 톡톡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리며, 무리한 가격으로 흥정하시기 보단 적정가격으로 흥정하셔서 즐거운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지방이동시 여행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운송수단입니다. 여행자 거리내의 숙소에서 터미널까지 픽업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픽업서비스가 불포함인곳도 있습니다!] 숙소픽업시간이 일정치 않는것이 불편하실수도 있으시지만 도시간 이동에 편리한 이동수단입니다.

여행자버스



로컬버스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입니다. 버스에 탄 순서대로 앉아 갈 수 있으며, 좌석이 없을 경우 입석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트



메콩강이 발달한 라오스에서는 보트 또한 유명한 운송수단입니다. 특히 북부지역에서는 슬로우 보트와 스피드보트라고 불리는 운송수단이 현지인과 여행자들에게 유명합니다.

기차



현재 태국 농카이역에서 라오스 타날렝까지 철도가 연결되어 운행중입니다. 타날렝에서 내려 오시는것보다 태국 농카이역에서 내려 육로로 입국하시는게 더 편리합니다.

공항택시



비엔티안공항에서 숙소까지 공항택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략 기본 6~8\$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거리에 따라 가격변동있습니다.

라오스 국적항공사인 라오항공을 비롯해 베트남 항공, 타이항공, PG항공, 에어아시아, 중국 항공등이 주요도시에 취항하고 있습니다.

- 태국 : 방콕, 우돈타니, 치앙마이
- 베트남 : 하노이, 호치민
- 캄보디아 : 씨엠립, 프놈펜
- 중국 : 곤명(쿤밍)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

항공



사. 우리나라와의 관계

□ 협정체결 현황

- 1996. 5 투자보장 협정
- 1996. 5 경제·과학기술협력 협정
- 2004. 4 한-라오스 경제공동위 설립 시행약정
- 2004. 11 한-라오스 이중과세방지 협정(2006.2 발효)
- 2008. 6 라오스, 한국인 일반여권 소지자 단기비자 일방 면제조치
- 2009. 6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2009. 6 한-라오스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 2010.4 한-라오스 항공협정

□ 유상원조

- 첫 번째 대 라오스 사업인 루앙프라방 국립대학 설립사업을 승인한 2004년 이래 현재까지 총 8건, 132백만 불을 지원
 - 루앙프라방 수파누봉 대학 설립, SEA 게임 주경기장 연결도로 개선사업, 5개 공항 소방설비 공급사업, 비엔티안시 소방설비 공급사업, 109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 북부도로 개선사업, 메콩강변 종합 관리사업, GMS북부송전 사업

□ 무상원조

-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농촌개발, 보건, 교육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총 4,933만 불 지원
 - 2010년도 기준, 대 라오스 무상원조는 총 979만 불
 - 지원 규모면에서 지난 5년간 10위 내 주요 수원국에 해당

□ 한-라오스간 교역 현황

- 주요 수출품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농약 및 의약품, 철강, 고무제품 등
- 주요 수입품 : 동제품, 목재류, 의류, 기호식품 등

• 우리업체 진출현황

단체 및 업체명	업종	전화 (+856)
SK E&C	댐건설	021-213-695
서부발전	댐건설	021-215-520
(주)부영 라오	건설(골프장)	021-732-238
H&E Lao Co., Ltd	건설(아파트/재방공사)	021-353-753
(주)서동	광산개발	021-416-918
KOLAO	자동차 외	021-450-599
한국거래소	금융	021-217-951
다움 라오 (루앙프라방)	레지(골프장)	071-260-444
마루산업	조립	021-312-280
세종고무나무	조립	020-5551-2055
(주)이산	건설(재방공사)	021-212-628
지평지성(라오스 지사)	법률	021-261-391
이정 C&D	건설(북부도로사업)	020-5400-3380
COSMO HOTEL	숙박/예식	021-711-175
J-FAMILY MOTORS	자동차	020-5555-5112
LP Trading	사무용 가구	021-520-328
하나무역	자동차부품	021-263-477
TAI-HWA	자동차부품, 컴퓨터	021-217-919
Indoko	유통(K-mart)	021-485-020
라오 볼링센터/웨일리 골프	레지	021-218-661
몬트레블 여행사	여행	021-244-386
트래블@라오	여행	021-254-299
아세안투데이	언론(인터넷 신문)	020-5656-5278
워블리라오	언론(인터넷 신문)	020-2297-0460
Lao-Korean College	교육	021-218-171
Top College	교육	021-353-900
LOGOS Academy	교육	021-250-531
Masters	교육	020-5590-8008

□ 라오스 및 한국 방문객 추이

- 라오스 방문 한국인은 2007년 13,000여 명이던 것이 2008년 9월부터 시행한 일반여권 소지자의 라오스 입국비자 면제(15일) 조치 이후 꾸준히 증가, 2010년에는 전년대비 53% 증가한 총 27,312명의 한국인이 라오스를 방문
 - 일반 여행객과는 별도로 학교, 병원, 국내 봉사단체 등 각종 기관 단위로 라오스를 찾는 봉사단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연도별 라오스 비자 발급 현황

(단위: 건)

연도	2008	2009	2010
총 건수(관광비자)	660 (237)	881 (502)	1,337 (1,221)

아. 북한과의 관계

□ 라오스-북한 관계

- 이념적 측면에서는 긴밀한 당정 교류를 유지하고 있으나, 물적 교류는 거의 없는 형편이며, 북한의 미사일, 핵무기실험 등에 대해서는 아세안 국가와 보조를 맞추어 반대 입장을 유지

□ 협정체결 현황

- 1968. 6 과학기술협정
- 1974. 10 경제 및 기술협조 협정
- 1977. 10 항공협정
- 1990. 5 통신사간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
- 1992. 7 영사협정
- 1994. 3 공보분야 협력협정
- 1994. 6 경제·과학·기술협조협정
- 1995. 9 정보협력 각서
- 1997. 5 무역협정
- 1997. 8 투자촉진·보호협정
- 2008. 6 민·형사 사법공조조약
- 2008. 8 경제교역과학기술 공동위원회 설립협정
- 2008. 9 양국간 체육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 2008. 10 라오인민혁명당-조선노동당 간 2008-2010년간 협조 및 대표단 교류에 관한 협정

□ 경제-통상 관계

- 북한은 라오스 공산혁명 과정에서 3백만 불의 상당량을 라오스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라오스 공산화 이후에도 군사용 탄약 및 총기류 부품 등을 상당량 지원
- 라오스 정부도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 제공
- 현재(2011년 기준) 실질적 경제 분야 협력은 거의 전무

3 최근동향

가. 정 치

- 라오인민혁명당은 2011년 3월 개최된 제9차 전당대회에서 제7차 5개년(2010-2015)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NSEDP :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을 채택
- 2011년 4월 실시된 총선 결과 구성된 제7대 국회 개원식에서는 촌말리 사야손 대통령과 분냥 보라췌 부통령, 판니 야토투 국회의장과 사이솜폰 폼비한 국회부의장이 각각 재선출되었고, 솜판 팽캄미 검찰총장이 제2의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됨.
- 제7대 국회는 촌말리 대통령의 추천에 따라 총리, 4명의 부총리, 18개 부처장관과 6명의 총리실 장관 등의 임명을 승인함.
- 라오스 지도부는 2010년 중 비엔티안 천도 450주년 기념행사, 고위급원조공여국회의(RTM) 등 대대적 규모의 대내외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입지를 강화하였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기초를 유지
- 당분간 라오스의 국내 정치는 안정 기초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정보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국가 및 지역정보("12.8.29)

나. 경 제

□ 라오스 동서횡단 철도 건설

- 동남아를 동-서로 연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 라오스의 동서횡단 철도건설관련, 공사비 50억불의 자금조성이 이루어져 4.10 라오스에서 서명식이 개최
- 2012년 11월 라오스 개최 ASEM 정상회의시 말레이시아 '나잡'총리와 라오스 '통상'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라오스 정부와 말레이시아 Giant Consolidated LTD간에 동서횡단 철도건설 계약식이 체결된 바 있음.
- 동 철도건설의 성공여부 관건은 공사비 50억불의 확보여부였는 바, 4.10 라오스에서 책임 시공사인 Giant Consolidated LTD와 뉴질랜드

금융기관 Rich Banco Berhad 간에 Fund Syndication Agreement가 체결됨으로써 사업의 구체성이 담보된 것으로 평가됨.

* 정보출처 : 라오스 일간지 KPL News(4.12)

□ 2012년 라오스 무역 적자 21억불

- 2012년 라오스 대외교역은 수출 34억불, 수입 54억불로 무역적자 21억불을 기록한 바, 무역적자의 상당부분은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건설장비, 기자재 등의 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4.9(화) 발표한 'Asian Development Bank Outlook' 보고서에서 2013년 라오스는 산업, 제조, 서비스분야의 견고한 증가로 7.7% 경제 성장이 예상되며, 향후 수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함.
- 라오스의 현 외환보유고가 7.08억불으로써 단지 1.6개월치 수입량만을 보증할 수 있는 액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라오스국립은행(BOL)은 수입품 대부분이 소비재보다는 외국인의 투자에 따른 건설장비, 기자재 등으로써 외환보유고를 크게 압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임.

* 정보출처 : 라오스 일간지 Vientiane Times(4.12)

다. 기 타

□ 라오스, 뎅기열(우기) 환자 발생 주의

- 최근 라오스에서 우기가 시작되면서 뎅기열에 걸리는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
- 4월 현재 이미 7명 사망, 400명 이상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우기가 막 시작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3년 이래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어 라오스 보건당국에서도 뎅기열 대응 지침을 발표하는 등 동향을 주시하고 있음.
- 뎅기열은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병이므로, 특히 외출시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예방에 유의

* 정보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안전여행 공지사항(4.30)

제3장 연수내용

1 방문지역 현황

가. 비엔티엔(수도 비안찬)



- 위치 : 메콩강 곡류 지점 총면적 : 3,920 km² 인구 : 61만명 9개 행정 구역 : 찬타블리(Chanthabouly), 시코타봉(Sikhottabong), 싸이세타(Xaysettha), 시사따낙(Sisattanak), 나싸이통(Naxaithong), 싸이타니(Xaythany), 핫싸이퐁(Hadxaifong), 상통(Sangthong), 응움 공원(Park Ngum)

- 신화에 따르면 비안찬시는 나가 수반낙(Naga Souvannanak)이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비안찬은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양 기슭에 자리한 고대도시로, 원래 명칭은 ‘반 농 칸테 피세우아남(Ban Nong Khanthae Phiseuanam)’이었는데, 기원전 430~120년의 첫 지도자였던 바우리찬(Bourichan) 혹은 프라야 찬타블리 파싯티삭(Phraya Chanthabouly Pasitthisak)이 현재의 이름인 비안찬으로 변경했다.



- 1357년 파 응움(Fa Ngoum)왕은 라오스 전체를 통일하여 란쌍(Lane Xang) 왕국과 이웃 왕국을 아우르는 힘과 권력을 갖게 된 위대한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거창한 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는 오늘날의 비안찬 지역인 팍 빠삭(Pak Pasak)에서 열렸다. 1560년 싸이세타(Saysettha) 왕은 란쌍 왕국의 수도를 루앙프라방에서 비안찬으로 옮기며 비안찬을 ‘나코른 찬타블리 시타 타낙하나후드 우따마 라자타니(Nakorn Chanthabouly Sitta tanakhanahood Uttama Rajathany)’라 불렀다.

- 17세기 솔리야봉사 타미카랏(Souliyavongsa Thamikarat) 왕 시절, 비안찬은 가장 진보적인 도시로 성장하여 정치 행정, 사회경제 및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왕은 용맹하고 명석하며 자애로웠고, 백성들은 행복했다. 메콩강 기슭을 따라 늘어선 황금빛 집들을 내려다보는 궁전은 매우 아름다웠다. 그러나, 1828년 비안찬은 삼군대에 의해 불에 타고 두 개의 도시로 분열되었다. 메콩강 우측의 도시는 삼의 영토가 되었고, 좌측의 도시만이 라오스의 영토로 남았다. 오늘날의 비안찬은 본래의 크기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규모로 남았다.
- 2009~2010년 사이 비안찬에서 중요한 역사적 행사가 두 개 열렸다. 2009년에는 동남아시아 스포츠 제전인 제25회 동남아시아게임(SEA Games)이 열렸고, 2010년에는 라오스의 비안찬 천도 450주년(1560~2010년)을 경축한 것이다. 이 두 기념비적인 행사를 준비한 뒤, 비안찬 시민들은 여전히 이 도시의 평화롭고 쾌적하며, 환경친화적이고 매력적이며 경쾌하고 진보적인 특성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오고 있다.
- ‘비엥(Vieng)’은 라오스어로 ‘도시’라는 의미이다. ‘찬타’(Chantha, tiane)는 빨리어로 백단향 혹은 달이라는 뜻이다. 비안찬은 백단향의 도시이며, 백단향은 도시의 상징이다. 비안찬은 또한 달의 도시, 혹은 시민들이 달을 상징으로 섬기는 도시이기도 하다. 실제로 라오스 국민들은 자신들의 선조가 달에서 왔다고 믿고, 심지어는 국기의 한 가운데에서도 달을 본뜬 모양을 찾아볼 수 있다. 비안찬의 구시가지에는 메콩강을 따라 고대의 사원, 박물관, 기념물, 공원이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그 매력과 흥미를 더한다. 라오스의 현대적인 도시 비안찬시에는 갤러리, 부티크, 극장, 나이트클럽과 인터넷 카페가 들어서 있어 전 세계로부터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도시의 규모는 작지만, 비안찬시에는 라오스 요리뿐만 아니라 외국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식당이 즐비하다.



나. 방비엥(비앙찬 주)

□ 일반현황



- 비안찬주는 비안찬시(Vientiane capital)에서 85 km가량 떨어진 라오스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총 면적은 22,554 km²로 지역의 2/3는 산지, 1/3이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쪽으로는 루앙프라방, 북서쪽으로 씨엥쿠앙(Xiengkhouang), 동쪽으로 볼리캄싸이(Bolikhamsay), 남쪽으로 비안찬시(Vientiane capital), 서쪽으로 사야볼리(Sayabouly), 97 km 반경 내 남서쪽에 태국의 로에이(Loei) 지방과 맞닿아 있다. 총 인구는 450,329명으로 이 중 여성이 224,065명이다. 비안찬주를 이루고 있는 행정구역은 13개로 타울라콤(Thoulakhom), 비엥캄(Viengkham), 께우돔(Keooudom), 판홍(Phonhong), 힌흠(Hinheurb), 방비엥(Vangvieng), 까씨(Kasy), 므엥맛(MeuangMad), 므엥 프앙(Meuang Feuang), 사나캄(Sanakham), 싸이솜본(Xaysomboun), 홈(Hom), 므엔(Meuane) 구역이 있다. 비안찬주의 주도는 비엥캄이다.

□ 에코트레킹



- 방비엥 지역은 비안찬 내에서도 관광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다. 트레킹, 자전거 여행, 남송 강에서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내려가는 튜빙과 카약, 파 탕(Pha Tang) 절벽 감상, 지역의 생활 방식 엿보기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강 양 옆으로는 초록의 숲이 펼쳐져 있다. 이는 안락한 휴식과 캠핑, 소풍에 더 없이 적합하여 방비엥으로 점점 더 많은 국내 및 해외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다. 루앙프라방

□ 위 치



- 루앙프라방은 라오스 북부 중심에 위치해 있다. 루앙프라방 북쪽으로는 우돔싸이, 풍살리, 후아판이 있으며 남쪽 및 남서쪽으로는 비안찬과 사이야불리가 있고 동쪽으로는 씨엥쿠앙이 있다 (총 면적 : 16, 875 km²)

□ 위 치

- 루앙프라방시에는 12개의 독특한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진 약 40만 명 남짓의 인구가 살고 있다. 크무 (Khmu)족이 가장 큰 소수 민족으로 전체 인구의 대다수(약 44퍼센트)를 차지한다. 몬크메르어를 사용하는 크무족은 산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라오스의 가장 오래된 정착 부족으로 전해진다. 두 번째로 큰 소수 부족은 흐몽 (Hmong)족으로, 인구의 16퍼센트를 차지한다. 주로 저지대 협곡과 루앙프라방 마을에 흩어져 살아가는 라오룸(Lowland Lo)족은 지역 총 인구의 39퍼센트를 구성하고 있다.

□ 역 사

-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최소 기원 전 8000년경부터 루앙프라방 지역에 사람이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라오스 왕국인 란쌍(Lane Xang) 왕국은 14세기 경 파응움(Fa Ngum) 왕이 현재의 시엥쿠앙(Xiengkhouang), 코랏 고원(Khorat Plateau), 그리고 루앙프라방 지역을 정복, 통일하여 창건하였다. 처음에는 므엥 스와(Muang Swa)라 불리던 이 도시의 명칭은 지역 거주민들이 바뀌어 부르면서 1357년 므엥 씨앙 동(Muang Xieng Dong), 혹은 므

영 씨양 통(Muang Xieng Thong)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파응음 왕이 크메르제국에서 보낸 파 방(Pha Bang)이라는 황금 부처상을 선물로 받으면서 이 번창하던 도시 국가는 루앙프라방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545년 셋타티랏(Setthathirath) 왕이 루앙프라방에서 비안찬(Vientiane)으로 천도하였지만, 루앙프라방은 이후로도 라오스의 종교 중심지로서 그 위용을 유지하였다. 17세기 중반 수리나 봉사(Surigna Vongsa) 왕 시대에 서양 선교사들의 첫 유입이 이루어졌다.

- 1694년 수리나 봉사 왕이 서거하자 란쌍 왕국은 비안찬, 참빠삭(Champasack), 그리고 루앙프라방 세 왕국으로 분열되었다. 19세기 후반에는 검은 깃발(Black Flag)의 약탈자들이 루앙프라방을 습격해 부처상, 절 사원, 역사적 문서 등을 파괴했다. 시사방 봉 왕(1904년-1959년)때 파괴된 유물들을 복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당시 복구된 유물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와 더불어 19세기 후반에는 프랑스식 건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라오스, 태국, 미얀마, 중국 식의 건축 양식이 가미되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루앙프라방은 수도원, 탑, 전통 의상 등 문화 유산이 풍부한 라오스 문화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다.

□ 특 징

- 1995년, 유네스코는 루앙프라방을 세계 문화 유산지로 지정하여, 아름답고 평화로운 루앙프라방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적, 국가적, 전세계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루앙프라방의 아름다운 사원과 목재 건물, 식민지 시대의 집, 식물과 바위의 조화가 뿔어내는 걸출한 자연경관은 세계 문화유산지로 지정되는데 부족함이 없다.



2 SOS 빌리지(루앙프라방) 방문

□ 방문기관 현황

- 창 시 자 : HermannGmeiner(오스트레일리아)
- 시 설 장 : 다온파포싸이
- 수용인원 : 206명(2013.6월 현재)
- 입소자격 : 3세~23세이며(양 부모가 없는 고아만 입소 가능)
 - 18세 이상은 SOS에서의 일을 통해 봉사활동
- 입소아동에 대한 지원현황
 - 어린이들을 정규학교에 보내면 학비는 SOS에서 지급
 - 생활비등 지원예산은 SOS와 후원자들에 의해서 확보
 - 사회인이 되었을때에는 일정액을 고아원에 다시 기부토록 하여 원생들간의 공동체 의식을 중시함.
- 시설 운영 현황
 - 시설내 각 독립주택 형으로 가족적인 구조로 운영
 - 항상 가족과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가정을 운영
- 주 소 : SOS Children's Village of Laos POB 3503, Ban Sivilay, Muang Xayth. Hom 02, Km 6, Kaysone Phomvihane Rd, Vientiane, Laos
- 전화번호 : + 856 - 21-710544, 팩스번호 : + 856-21-710163
- 홈페이지 : www.sos-childrensvillages.org/Where-we-help/Asia/Laos

【SOS 어린이 마을 소개】

-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우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데 SOS 어린이마을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게 된 아이들을 SOS가족이란 영구한 가정 안에서 자립할때까지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시설임
- 고아나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가족을 대체해 줌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는 기관이 SOS어린이마을임

- SOS는 “Save Our Souls” 의 약자로 “저희 영혼을 구하소서”라는 뜻임.
- 세계 131개국에 1,582개 가량의 시설(415개의 어린이마을과 1,167개의 부대 시설)을 가진 민간 사회복지 단체이며 라오스에는 현재 6개의 시설이 있음

【SOS 어린이 마을 출발은?】

- SOS 어린이 마을은 제2차 세계대전의 흔적이 여전히 선명하던 1949년 오스트리아 티롤지방의 임스트란 작은 마을에서 시작됨. 전쟁이 빚어낸 참화만큼이나 어린이들에게 남겨진 혼돈과 무질서도 극심했으며 많은 어린이들은 폭격으로 파괴된 도시 한복판을 배회하거나 절망과 혼란, 무기력만이 팽배한 피난민 수용소 틴바구니에서 연명함
- 1949년 헤르만 그마이너가 최초로 세운 오스트리아의 임스트 SOS어린이마을 출발 당시의 SOS 어린이마을은 자본 600실링으로 당장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받아드릴 규모의 수용시설은 엄두도 낼 수 없었지만 SOS이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모으고 방치된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에 대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호소하는데 충분하였음.
- 전후 혼란기를 거친 경험으로 가장 어려운 아이들, 범죄에 빠지기 쉬운 아이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정상 가정과 흡사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원래 가정 처럼 성공적으로 대체되고 효과적인 가족의 기능을 할 수 있음.

【창설자 헤르만 그마이너(1919~1986)에 대해】

- 오스트리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성장함. 2차대전 전쟁 후 인스부룩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다가 부모없는 아이들의 문제를 체험함. 당시 시설들의 양육실태가 고아들의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현실에 비애를 느끼며 이들을 올바르게 도울 수 있는 방도를 찾기 시작함. 그는 산발적으로 실험되었던 기존모델들과 자신의 체험을 결합하여 sos어린이 마을이란 가족교육 형태의 아동복지시설을 창안하여 전 세계의 부모 없는 어린이들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참다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음.

〈 라오스 내 SOS빌리지 시설 현황 〉



□ 방문개요

- 일 시 : 2013. 7. 1(월) 09:00 ~ 10:00
- 면 담 자 : 다운파포사이 시설장 외 2명
- 주요내용 : 시설운영현황 청취, 방명록 작성, 학용품 전달, 시설 견학
- 현황설명(시설장)

- 현 시설은 루앙프라방에 무앙카이의 반퐁마을 근처 외곽 4km에 위치
- 2001년 6월에 완공, 14개의 숙소가 있으며, 각 숙소별(약 10인 정도)로 아이들의 엄마역할을 하는 보모를 통해 가족을 대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 2013년 6월 현재 206명이 입소해 있음 마을 옆에는 SOS 헤르만 그마이너 학교가 있고 21개의 교실이 있음
- SOS 어린이 마을에서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직업훈련과정을 시작할 때 SOS 청소년 시설 또는 고등교육을 받음
- 라오스 정부는 SOS 어린이마을 땅을 임대해주고 해외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건물비, 운영비, 관리비 등)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라오스에서 고아 발생시 대책은?
 - 남아들은 주로 불교사원에서 장성할 때까지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고, 여아들은 SOS빌리지나 다른 나라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수용됨
- 현 시설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 2002년 SOS 어린이마을은 가족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음.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을 포기할 위험이 있는 가족을 지원하고 가족이 함께 머물 것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음.
- 라오스 학제와 의무교육 수준은 어떠한가?
 - 유치원은 만3~5세가 대상이고 초등학교는 만6세 이상이 대상임. 초등학교는 5년, 중고등학교는 통합 7년임
 -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음
- 라오스의 교육비 현황은?
 - 초등학생은 국가에서 1인당 약 3달러 정도 지원. 공립학교 학생 경우 1년에 약 5달러 학비 소요
 - 사립학교의 경우는 한달에 약 20달러 이상 학비 소요

□ 시사점

- SOS 빌리지는 오스트레일리아인이 창시하였지만 시설장은 라오스인이며 라오스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동 시설을 방문하여 라오스의 복지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음
-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복지는 다소 소홀시 되는 경향이 있지만 동 시설의 시설상태 및 운영시스템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았음
- SOS 빌리지 내에 수용된 고아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 할때 까지 철저하게 지원하여 오히려 일종의 엘리트 코스를 국가에서 직접 지도해 주는 상황이 되고 있음
- 우리도에서도 연말연시 등 특별한 경우에만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일시적, 형식적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지역사회 측면에서 상시적 지원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인식의 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방문사진



3 라오스 한인회 간담

□ 방문기관 현황

- 설립 일 : 1996년
- 성격 및 활동
 - 교민간의 친목과 화합 도모, 라오스 내 교민의 권익 신장
 - 한국과 라오스간 민간 교류에 집중하여 교민들의 권익보호와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양국간의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음
- 조 직 : 회장, 부회장, 고문, 감사, 사무국장 등
- 주 소 : Vientiane Plaza Hotel Sailom Road , Hatsady Village Vientian Capital , LAO PDR
- 연 락 처 : Tel. +856-20-55555112 | +856-21-265390
- 홈페이지 : <http://homepy.korean.net/~laos1/www/>

□ 간담개요

- 일 시 : 2013. 7. 2(화) 14:00 ~ 14:50
- 장 소 : 라오스 한인회 사무실
- 면 담 자 : 정우상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 4인
- 주요내용 : 라오스 한인회 운영 및 활동상황 및 애로사항 청취
 - 한인회 설립 동기, 조직 현황, 현재까지 한인회 운영과정 설명
 - 교민화합을 위한 노래자랑 등 문화체육 행사, 한글학교 운영, 책나눔터 운영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라오스 내 한국인 현황은?
 - 교민은 대략 2,000명 정도 되며, 무역업 종사자나 국내 공·사기업 주재원, 봉사단원, 선교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2012년 3월부터 한-라오스간 정기항공 “진에어”가 개설됨에 따라 라오스를 찾는 관광객과 교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한인회장께서는 다른 활동도 하시는지?
 - 2004년 중고차 무역업을 하러 라오스로 와서 현지인과 결혼 후 현재 자동차 판매·정비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 한인회장을 맡게 된 계기는?
 - 한인회 상근부회장과 자유총연맹 라오스지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라오스 한인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제10대 한인회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됨
- 라오스 한인회만의 특별한 활동상황이 있다면?
 - 2012년부터 한인들이 술선수범해 라오스 시민에게 선진시민 의식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에 매달 한번씩 대한민국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만든 짜우아누봉 공원을 청소하고 있음
 - 이 행사에는 대사관과 기업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가 깊음
- 라오스생활 중 교민들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 크게 자녀 교육문제와 의료문제를 들 수 있다. 라오스는 공립 학교 교육수준이 매우 낮아 대부분 교민의 자녀들은 수도인 비엔티엔에 있는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음
 - 한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글학교가 있지만, 자녀들의 모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전달이 쉽지 않음
 - 교민 가족 중 심장질환 발생시 응급처치 등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보았으며 대한민국처럼 전문성을 가진 응급 의료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함
- 최근 탈북자 북송 관련 교민사회의 여론은?
 -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로 라오스에서 TV, 신문 등 언론을 통해 탈북자 북송 관련소식을 접하기에는 어려움. 다만, 라오스를 찾는 한국인 여행객들이나, 대사관 등을 통해 관련소식을 접하고 있음
 - 당시 대사관이 탈북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라오스 사회와 대사관의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내국인 보호가 철저한 라오스 특성상 대사관의 업무가 많고, 인원도 적어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기타 바라는 점은?
 - 라오스는 기회의 땅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서류작업이 지루할 만큼 길고 제한사항도 많은 반면 정책이 한번 정해지면 쉽게 바뀌지 않아 안정적이라 많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라오스에 진출해 국가의 위상을 높여 주셨으면 함

□ 시사점

- 라오스 한인회와 간담을 통해 한국과 라오스 정부간의 관계는 교민사회에 큰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현지 교민 자녀들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국제학교 설립 및 도서관 지원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어 중고책을 수집 전달하는 등 지원이 필요함
- 라오스의 의료는 매우 열악하여 대다수 교민들은 인근 태국의 병원을 이용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라오스내에는 응급환자 발생시 전문 의료진 및 시설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충으로 무엇보다 기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됨.
- 우리도에 있는 산골마을 등 의료·교육 취약 지역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 점검 및 중고 도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방문사진



4 한국국제협력단(KOICA) 라오스본사 방문

□ 방문기관 현황

- 설립일(라오스 사무소) : 2001년
- KOICA 라오스 본사 사업
 - 보건사업 : 국립 소아과 아동 전문 병원 건립 지원, 상수도 공급 등
 - 교육사업 : 교과서지급 , 라오스국립대 아세아 사이버역량 강화 등
 - 농촌개발 :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마을 소득증대 사업 등
- 주 소 : Vientiane Plaza Hotel 3F, Sailom Road, Hatsady Neua Village, Chanthaboury Dist, Vientiane, Lao PDR
- 연 락 처 : Tel: +856 21 263 331
- 홈페이지 : <http://www.facebook.com/koica.laos>

【한국국제협력단 현황】

- 설립목적 :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
- 주요연혁
 - 1991 한국국제협력단 설립
 - 2002 평화구축지원사업 시작
 - 2010 지구촌 체험관 개관 및 ODA 교육원 개원
 - 2012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개발협력사업 시작
- 주요수행 사업



● 조직구성

- 본부 : 이사장, 4이사(상근), 1본부, 10부, 8실, 29팀

- 해외사무소 : 28개국 28개사무소(주재원 16개소)

· 아시아(13)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파키스탄

· 아프리카(8) : 가나, 나이지리아, 르완다, 모잠비크, 에디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DR콩고

· 중 남 미(4) :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동구,CIS(2) :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 중 동(1) : 이라크

※ 주재원(16) : 미얀마, 모로코, 세네갈, 알제리, 이집트, 케냐, 탄자니아, 튀니지, 과테말라,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요르단, 팔레스타인, OECD대표부, USAID

● 조직도



□ 방문개요

- 일 시 : 2013. 7. 2(화) 15:00 ~ 15:50
- 장 소 : 한국국제협력단 라오스본사 사무실
- 면 담 자 : 권영의 소장, 김정애 부소장 등 3명
- 주요내용 : 한국국제협력단 주요사업 추진상황 청취 및 질의응답
- 한국국제협력단 라오스 본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크게 건강분야, 교육분야, 시골지역발전분야로 나누어 설명

【세부사업 추진상황】

- 건강분야 -

- 라오-코리아 국립 어린이 병원 건립
 - 기 간 : 2009년 ~ 2011년
 - 장 소 : 비엔티안
 - 내 용 : 라오-코리아 국립 어린이 병원은 아이들의 사망률을 줄일 목적으로 건립된 첫 번째 병원임. 60명의 스텝과 10명의 코이카 직원과 3명의 코이카 의사 들이 70침상의 병원에서 수술실, 실험실, 엑스레이실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고 있음
- 수처리 플랜트
 - 기 간 : 2010년 ~ 2011년
 - 장 소 : xebangfai, 캄무안
 - 내 용 : 플랜트는 4개마을(tueng, Dongsavang, Beunghauna, Khauxe)과 xebangfai의 1개마을에 안전한 물을 제공하고 있음

- 교육분야 -

- 라오-한국 직업훈련 센터
 - 기 간 : 2002년 ~ 2005년
 - 장 소 : 비엔티엔
 - 내 용 : 다양한 직업훈련 코스가 있음 [IT(컴퓨터), 전기, 기계, 의복제작, 가구제작, 전기수리, 뷰티, 디자인 요리 등]

- 중등학교의 향상된 교과서 출판
 - 기 간 : 2007년 ~ 2009년(1차), 2010-2012(2차)
 - 장 소 : 17개지역 359개 학교
 - 개 요 : 초등학교는 80%의 교과서가 있지만 중등학교에서는 20%에도 못미친 비율로 교과서가 있음. 2008년부터 2009년까지 3회 발행하여 2.66백만 교과서를 39만학생(6-11학년)에게 공급함
- 고아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설
 - 기 간 : 2008년 ~ 2013년
 - 장 소 : 방비엥, 비엔티안
 - 내 용 : 2008년 라오스의 읽고 쓰는 능력의 비율은 85.5% 이며 중등학교 진학률은 48.3%에 불과했음. 기초 교육환경강화를 위해 코이카는 고아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2010년 건축 완공
- 시골지역 발전 -
- 수입개선을 위한 노력
 - 기 간 : 2007년 ~ 2008년(1차), 2010-2012(2차)
 - 장 소 : 5개마을(비엔티엔)
 - 내 용 : 시골지역의 급격한 발전을 보여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전파를 위해 마을 길과 마실수 있는 물, 농업용수로 등을 개선함
- 불리칸 작은 마을 물 공급과 위생시설
 - 기 간 : 2007년 ~ 2009년
- 댐과 수로 건설
 - 기 간 : 2008년 ~ 2010년
 - 장 소 : Meun, 비엔티안
- 포장도로 건설
 - 기 간 : 2010년 ~ 2011년
 - 장 소 : Lingxan, 비엔티안

【2013년 뉴 프로젝트】

- 커뮤니티비즈니스 재단 창설(CB)
 - 기 간 : 2012년 ~ 2013년
 - 장 소 : 루앙프라방, kukngieu 마을
 - 참 여 : 부경대학교(콘소시엄 우송대학교), 수파누농국립대학교
- 아이들 건강증진 서비스 향상
 - 기 간 : 2014년
 - 장 소 : 시앵쿠앙
 - 내 용 : 의료장비를 다루는 기술을 향상시켜 세 지역(쿠안, 타 톱, 모르크메이) 의 아이들 건강권 확보
- 인적자원을 활용한 교육 및 관리
 - 기 간 : 2012년 ~ 2014년
 - 장 소 : 방비엥, 비엔티안
 - 내 용 : 케빈대학교(방비엥 캠퍼스)에 영어지역의 인적자원을 통한 컴퓨터 교육과 직업기술을 트레이닝
- 모르크메이,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Gap project)
 - 기 간 : 2013
 - 장 소 : ADRA 코리아, ADRA 라오스
 - 내 용 : 모르크메이 지역에 사는 시민들에게 여성관계의 문제점과 여성의 사회활동, 경제활동에 대한 해결방안을 위한 교육을 제공
- 수처리 플랜트
 - 기 간 : 2013년 ~ 2014년
 - 장 소 : xayabuly 와 oudomxay
 - 내 용 : 인프라 건설과 전문가 파견, 장비 투입, 현지연수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위생시설 발전과 24시간 안정적인 음용수 제공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라오-코리아 국립어린이 병원의 현재 운영상황은?
 - 개원 당시 하루 환자가 10여명에 불과했던 아동병원은 입소문을 타고 환자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외래환자 2만9000여명, 입원환자 2,300여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에는 이미 전년도 외래와 입원환자 수를 초과할 정도로 많은 라오스 어린이들이 의료혜택을 받고 있음
- 보건사업 관련 라오스의 당면 문제는?
 - 라오스는 특히 모자보건의 가장 현안문제로 산모를 보호해 주거나, 분만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유아 사망률이 높은 편임. 코이카에서도 올해 단일사업으로는 최대규모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현지 봉사단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 라오스 전역에 52명의 봉사 단원을 파견하여 교육과 물자를 지원하고 있음.
- 봉사단원 신청 자격 및 모집은 어떻게 하는지?
 - 라오스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기에 맞게 서울 본사에서 일괄 모집하며, 봉사기간은 2년임
- 공무원 초청사업은 어떠한 사업인가?
 - 매년 150명 정도 라오스 공무원을 한국에 초청하여 교육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300여명이 참석하였음. 라오스는 공무원수가 적어 웬만하면 모두가 동사업의 연수에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됨
- 한국국제협력단 라오스본사 인원은?
 - 서울에서 파견은 11명과 현지에서 채용한 현지인 8명을 합하여 19명임. 소장은 파견온지 2년 좀 넘었음
- 라오스에서 원조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지?
 - 라오스의 경제는 대부분 개방되어 경제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나, 사회주의 국가로 모든 활동이 당에 보고되어야 하는 등 매우 제한적임

□ 시사점

- 아시아의 주요 빈곤국 가운데에서도 라오스는 아프가니스탄과 캄보디아에 이어 세 번째로 원조규모가 크며, 현재까지 경제적 원조, 보건 및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모자보건의 열악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의료인력 양성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음
- 라오-코리아 국립어린이 병원 이용현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기술과 장비 그리고 인력을 수출한다면 성공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우리도에서도 모자보건은 국민건강의 기본 필수임을 인지하고 의료취약지역에 모자보건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조산원과 보건요건으로 이루어진 모자보건요원을 배치하여 임신등록, 산전진찰, 출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외 봉사단원 중 시니어 단원(만50세 이상)을 모집하는 것은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퇴직자 등 장년층 일자리 창출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음

□ 방문사진



5 KOLAO 그룹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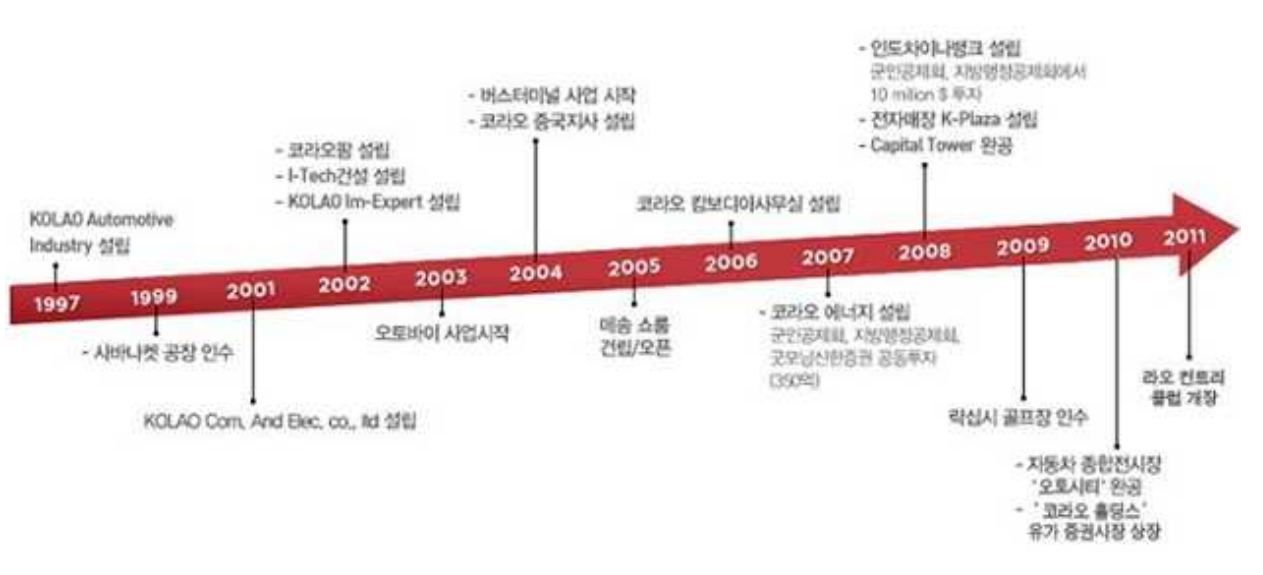
□ 방문기관 현황

- 설립 일 : 1997년
- 회 장 : 오세영
- 주요사업 : 자동차 조립판매, 오토바이 생산판매, 건설, 에너지, 전자유통, 은행, 미디어
- 주 소 : CAPITAL TOWER BAN NONGBONE. THATLUANG RD. SAYSETHA DISTRICT. VIENTIANE CAPITAL.P.O BOX 8158. LAO PDR
- 연 락 처 : +856 21 450 560
- 홈페이지 : <http://www.kolaogroup.co.kr>

□ 방문개요

- 일 시 : 2013. 7. 2(화) 15:00 ~ 18:00
- 장 소 : KOLAO그룹 일원
 - 자동차 판매장 및 공장, 전자제품매장 K-PLAZA, 신문사, 가구 판매장, 골프장, 그룹 본사
- 면 담 자 : 한명규 부회장 외
- 주요내용 : KOLAO 그룹 시설 안내 및 현황 설명

【코라오 그룹 소개】



- 수도 비엔티엔에서 자동차 조립 및 판매 사업을 시작으로 라오스의 경제 성장과 맥을 같이 해 온 KOLAO는 바이오에너지, 전자유통, 건설, 레저 등 8개 분야 사업 추진
- 코라오는 1999년 라오스 공업도시인 사바나켓에서 공장을 인수하여 자동차 조립라인을 갖추었으며, 2002년 라오스 최초로 에프터서비스센터를 열어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을 실현했다. 2003년에는 독자적인 브랜드로 오토바이 생산을 개시했으며, 첫 오토바이 출시 때는 공장에서 출하하기도 전에 100% 예약 판매를 완료하는 기록을 만들었음
- 그 후 지속적인 성장으로 수도인 비엔티안 시내에 직영 판매장을 오픈하였고, 지금은 전국에 310여개의 딜러망과 프랜차이즈를 갖추게 됨. 2007년 Bio-Diesel원료인 자트로파를 라오스 국민들과 함께 경작함으로써 라오스 국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으며 그린에너지 사업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
- 전자유통사업으로는 2008년 다국적 Multi-Brand 전자제품 양판점인 'K-Plaza'를 오픈하여 전자제품 판매 및 제품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 금융산업으로는 2008년 말에 오픈한 "인도차이나 뱅크"를 중심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특히, 인도차이 뱅크는 격 높은 디자인과 인테리어로 설립부터 관심을 모았고, 다양한 금융상품과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로 급성장하고 있음. 라오스 지점외 지사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에 설립
- 미디어산업으로는 신문사를 설립하여 LAO ECONOMIC DAILY 일간지를 발행

□ 주요 질의응답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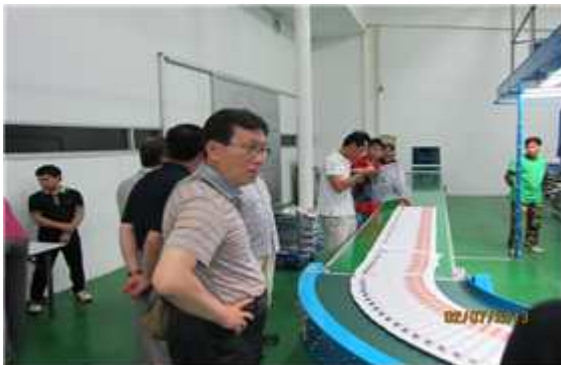
- 자동차 판매시장 성공 요인은?
 - 다른 국가와는 달리 자동차만 판매하지 않고 판매와 정비를 같이 하고 우리나라만의 빠른 AS가 있어 가능한 일이라 생각됨
 - 라오스 자동차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음

- 오토바이 판매시장 성공 전략은?
 - 자동차에서 쌓은 노하우를 접목시키고자 2003년에 시작함. 일본 혼다, 중국의 저가 오토바이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국적 아웃소싱을 통해 각국의 싼 부품을 모아 조립 판매한 것이 성공요인으로 생각됨. 라오스 오토바이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음
- 전자제품 유통매장 K-PLAZA 판매 상황은?
 - K-POP 열풍과 빠른 AS로 삼성, 엘지 제품이 인기가 많음, 당초 일본제품을 매장 앞쪽에 진열했으나 현재는 한국제품을 앞쪽에 판매하고 있음
- 사회환원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무엇이 있는지?
 - 라오스 정부 요청으로 골프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문을 발행하고 있음
- 인도차이나 뱅크만의 금융시장 진입 성공 전략은?
 - 라오스인은 그날 벌어 그날 쓰며 저축하는 습관이 없음. 사실 은행설립은 리스크가 큰 분야로 처음에 단독으로 사업시작하였으나 한국의 행정공제, 군인공제회의 자금을 받아 은행 설립 후 3년만에 수익이 발생함
 - 은행에도 한국식 서비스를 도입했음. 타은행을 이용하는데 보통 1~2시간 기다리는게 기본이지만, 인도차이나 뱅크에서는 간단한 것은 1~2분내, 대부분 5분내에 처리하도록 했으며, 고액예금자를 유치하기 위해 VIP룸을 운영했음
- 신문을 발행하게 된 계기는?
 - 라오스에는 읽을거리가 없고 읽는 습관이 없음. 지식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고, 정보도 입소문을 통해서 전달되는 상황임. 초기에는 주간지로 발행했으나, 금년부터 일간지로 발행
 - 라오스의 철자법이나 문법이 100% 정립이 안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문편집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 사용하고 있음
- 신문 배부처 및 발행 부수는 얼마나 되는지?
 - 정부, 관공서, 기업체, 학교에는 무료로 배부하고, 일반인에게는 다른 신문보다 싼 가격으로 유상 공급하고 있음
 - 하루에 1만부 정도 발행하고 있으며, 향후 3만부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시사점

- KOLAO그룹의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듯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현지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현지화 전략수립 및 실천이 필수이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사회환원을 통한 국가와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음
- 우리도 지역기업에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한다면 도민들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발돋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식전환을 위한 의정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방문사진



제4장 연수후기

라오스 연수를 마치며 (고영규 환경복지위원장)

시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 연수를 마친 나에게 누군가 라오스가 어떤 나라인지 물어보면 간단하게 3가지로 설명해 줄 수 있다. “느림”, “그때 그때 달라요 (일관성이 없음)”, “되는 게 안되고 안되는 게 되는 나라(사회주의국가)”
- 유유히 흐르는 매콩강, 푸르름이 넘치는 산과 정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며, 사람과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온후한 민족 특성으로 시간의 흐름을 잊고 어딘가 다른 행성에 온 듯 한 나라, 우리나라 1970년대의 모습을 볼수 있는 그곳이 바로 라오스이다.
- 연수기간 내내 라오스인의 웃는 얼굴 표정을 보며 “행복은 편리함이나 물질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항상 긴장속에서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들만의 삶의 방식인 느림”의 가치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일깨워 주었다.



고영규 위원장
(광시폭포 앞)

보존과 느림

- 우리위원회는 연수 기획을 위한 간담회를 통하여 고창운곡습지보전,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등 최근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자연 그대로를 간직하고 생태관광자원이 풍부한 라오스를 연수국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 연수를 떠나기전 직원들에게 두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식사 잘하고, 개인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길 당부하고

- 둘째, “진정한 여행의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갖는 것이다” 라는 프랑스의 문호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과 같이 스스로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어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연수에 참여하길 강조하였다.
- 인천-비엔티엔 노선은 “진에어”라는 대한항공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행기 크기나 서비스 등에서 대한항공 등 메이저 항공사에 비할 수가 없었다. 특히 기내에 운항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시설이 장착돼 있지 않아, 도착할 때까지 여간 답답한게 아니었다.
- 하지만 전문위원실에서 제작한 참고자료 책자를 보며 연수국에 대한 이해와 연수시 벤치마킹 할 사항을 재점검하다 보니 어느새 라오스 비엔티엔 공항에 도착하였다.
- 연수 둘째날, 방비엔의 생태환경을 시찰하였다. 방비엔은 우리나라 면소재지 정도의 작은 도시로 마치 중국의 계림 일부분을 옮겨놓은 것처럼 송강을 따라 이어진 특이한 석회암 바위산이 만들어 내는 절경으로 휴양, 카약킹, 트레킹 등의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주요 관광지이다.
- 방비엔 시찰 도중 도로에는 유난히 소, 닭 등 가축들이 눈에 띄었고 사람들 주변에도 어김없이 가축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도로변에 소가 지나가면 차가 피해서 가고 또한 그런 상황을 대하는 라오스인의 표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라오스에서는 가축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지로 가두지 않는다고 한다. 나중에 잡아먹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오스인의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바로 이러한 너그러운 여유를 지녔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 연수 셋째날 방비엔의 아침시장을 견학하고, 고산민족 몽족마을 방문 생활상을 보면서 루앙프라방으로 이동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다.
- 루앙프라방은 “위대한 불상”이라는 뜻으로 1995년 도시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관광도시로 예전의 라오스의 수도이다.

새벽에 탁발 체험 및 새벽시장을 견학하고, 복지시설인 SOS 빌리지를 방문하였다.

- SOS 빌리지는 민간어린이 보육시설로 라오스내 현재 6개의 시설이 있다. 시설장(다운파포싸이)으로부터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본 후 우리 위원회에서 준비한 학용품을 전달하였다. 특이한 것은 시설 운영에 투명성을 기하고자 학용품 목록을 세부적으로 기재 후 확인을 요청하였다. 사회주의 체제로서 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으며 외국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어 입소자들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 복지시설 방문 후 라오스 최대 산림공원 쾡시폭포를 방문하였다. 폭포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게 소박하지만 진짜 매력은 폭포 자체보다 주변에 있는 때문지 않은 자연환경을 음미하면서 폭포 아래의 물에 자유스럽게 뛰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지 않은 것 때문인지 보존을 위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충분히 장사가 될 만한 곳인데도 별다른 제약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듯 하였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 연수 마지막날 아침 우리가 묵은 호텔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한 한명규 부지사였다. 그는 현재 라오스 KOLAO 그룹의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당초 예정된 일정이 끝나는 데로 현장을 안내해 주었다.
- KOLAO 자동차 판매장과 공장을 안내한 후 전자제품매장 K-PLAZA, 신문사, 가구판매장, 골프장, 본사를 차례로 소개해 주었다.
- KOLAO는 KOREA와 LAOS를 합쳐 만든 말로써, 라오스 국적의 민간최대 기업이다. 1999년 라오스 샴바나켓에 중고자동차 조립라인을 갖춘 공장을 설립하고 2002년부터 라오스 최초로 서비스센터를 열었다.
- 또한, 자동차 판매 할부 등을 위해 인도차이나 은행을 설립하고, 2010년에는 한국인이 이끄는 외국기업 최초로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하였다.

- 특별히 자부심을 가지고 안내해 준 곳이 있는데 그곳은 신문사였다. LAO ECONOMIC DAILY는 일간지로 라오스의 정치를 제외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한마디로 코라오 그룹은 우리나라의 삼성과도 같은 기업이라 생각이 되었다. 이러한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국가와 기업이 동반성장하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타임머신을 타고..

- 어느덧 연수의 마지막 일정이 끝나고 우리연수단은 비엔티엔의 왓파이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몸은 지쳐있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 풍요로웠다.
- 5시간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니 타임머신을 타고 1970년대 과거에서 2013년 현재로 돌아온 듯 한 기분이 들었다.
- 금번 연수는 무조건 경제개발을 위해 자연환경을 파괴하기 보다는 보전과 개발이라는 공존할 수 없는 딜레마를 극복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나가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 아마존과 같이 지구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라오스의 풍부한 숲에 대해 지구촌 가족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삼림자원이 벌채 등으로 훼손되지 않고 보존 유지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 아울러, 원조상황 등 라오스 현지상황을 이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전라북도민의 한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 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과 깨달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더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이만 줄이고자 한다.